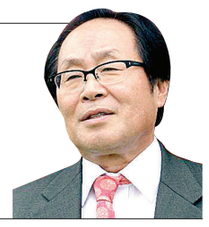
현불 논단

# 자살과 四聖諦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에**
**국민들 황망… 이후 상황도 우울**

**예나 지금이나 자살은 부정 인식**
**삶의 괴로움과 무상을 인정 않고**
**회피하려는 無明의 행동이 '자살'**

**'삶은 고통'이며 그 원인은 갈애**
**고성제 집성제 가슴에 새겨보자**
**고해의 바다서 익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국민은 황망한 혼돈의 늪에 빠져 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의 사슬에 얽혀 신음하고 있는 와중에, 故박원순 前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로 표상되는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멍한 상태에 빠져 있다.

故박 前시장은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 발전에 큰 축으로 역할을 해 왔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각되어 왔다. 그런 사람이 비서의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故박 前시장의 영결식 이후 전개되는 여러 상황과 담론의 수준은 우리를 우울케 만들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자살에 대해 인류가 공유하는 태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자살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훼손하는 일이고 또한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삶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다. 칸트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인간을 한낱 '고통 완화의 수단'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쇼펜하우어도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으로 본다. '이타적 자살'도 있다. 베트남 스님들의 독재 반대나 티베트 스님들의 독립 쟁취를 위한 소신공양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론적인 자살과 성격이 다르다.

한국은 2003년 이후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자살 사망률 1위를 이어 오고 있다. 자살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이 6조 48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구나 한국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 정치인으로 평가받으며 존경과 비전의 표상이 된 유력 정치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으니 청소년에게 모방 자살의 유혹을 줄까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가 자살 공화국이 된 것인가?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여 왔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살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붓다의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사성제(四聖諦)'이다. 모든 존재가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고성제, 괴로움은 갈애와 집착으로부터 생긴다는 집성제 그리고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멸성제와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방법인 도성제가 그것이다.

이 사성제는 붓다 가르침의 기본이요 핵심이다.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는 자살 방지와 예방에 제일 중요한 치유약이다. 산다는 것은 바로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과 무상을 삶의 양식에서 거부할 때 고해의 바다에서 익사하는 것이다. 익사의 한 형태가 바로 자살이다. 고와 무상을 일상적 삶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큰 마음과 큰 지혜로 고해의 바다를 넘어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다. 고성제가 사성제의 으뜸인 이유가 다 있다.

다음 집성제, 즉 괴로움의 원인이 갈애와 집착임을 알 때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엔진을 단 것이다. 필자는 고성제와 집성제만 가슴에 새겨도 자살의 유혹을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살은 결국 삶의 괴로움과 무상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려는 데서 나온 무명의 행동이다. 여기에 한국 불교의 과제가 있다. 사성제라는 진제, 즉 궁극적인 진리를 자살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연결시키는 세속제, 즉 일상적 진리로 전환시키는 연구와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사성제의 지혜를 이 땅의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한 교육적인, 사회정책적인 방안에 대한 탐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불교의 역할은 점점 커지니 이를 어쩌랴.

社說

# 태고종,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한국불교태고종 제20세 종정에 지허 스님이 추대됐다. 前 종정 혜초 스님의 임기가 2019년 4월 만료된 이후 1여년간 공석이었던 종정 자리가 드디어 채워진 셈이다. 한 종단의 종정은 법의 상징이자 종단의 정신적 스승이다. 때문에 늦게나마 지허 스님이 새로운 종정으로 추대되면서, 이를 종단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세월 태고종은 각종 분규로 어지러웠다. 무엇보다 편백운 스님으로 인해 불거진 최근의 종단사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내 종단 순위가 격하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이 같은 혼란 속에 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전국 태고종도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출됐고, 태고종은 그동안의 곪은 상처를 조금씩 걷어내면서 종단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허 스님의 종정 추대가 유독 반가운 것은 이 같은 정상화 노력에 종정 스님의 존재가 굳건한 울타리가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지허 스님은 태고종에서 손꼽히는 선지식이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당대의 큰스님들을 만나 불법을 깨쳤으며 교학은 물론, 한평생 수행에 매진해 온 선승으로 일컬어진다. 대중들에게도 적잖이 알려졌다. 순천 선암사 아래 금둔사를 중창하고 거주하면서 한국전통 차와 차문화를 복원, 확산시켜 온 주역이기 때문이다.

태고종은 종정 추대를 계기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종정 스님을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아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해야 한다. 계파와 이해관계를 따지며 과거를 답습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종정 추대를 계기로 모든 태고종도의 마음이 종단 발전을 향한 하나의 굳건한 원력으로 모이길 발원한다.

# 조계사 일요법회 20년, 성공비결은

음력의 의미가 쇠퇴하고 도시 중심의 생활이 진행되는 현재, 일요법회는 주요 법회 형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많은 사찰들이 일요법회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요법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일요법회 만의 특색이 없단 점이다. 각 사찰은 초하루 법회 이외에 어린이 법회, 거사회 법회 등 계층별 다양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초창기 일요법회 정착기와 달리 기도 중심의 초하루 법회 외에 '일요일'이란 시간적 차이 말고는 특장점을 발휘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란 듯이 극복해 낸 좋은 사례가 있다. 7월 5일 창립 20주년을 맞은 조계사 일요법회 봉행팀의 사례다. 2000년 7월 초기 30여 명으로 시작한 일요법회 봉행팀은 200여 팀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발전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일요법회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운영, 어르신들이 쉽게 법률지식을 얻을 수 있는 법률상담 진행, 성지순례와 사찰 체험 활동 등의 운영이다.

문득 '이런 것이 일요법회인가'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조계사 일요법회 봉행팀은 일요법회를 진행한 후 이러한 강좌를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갖는다.

신도들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진행은 신도네트워크 구성에도 효과적이다. 평균연령 60대 뿐만 아니라 30대와 40대들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강좌를 열어 점차 연령대도 낮춰가고 있다.

'일요법회'는 이제 한국불교계에서 흔한 법회 형식이 됐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진일보한 일요일만의 특색있는 법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계사 일요법회 봉행팀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이 필요하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 임종까지 佛子로 살다

코로나19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은 아직 환우들을 찾아 병실 방문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병원 측 요청으로 모든 종교실 문을 닫아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 한 환자 때문에 법당 문만 열어놓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환자는 입원 중 병원 법당을 찾았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러나 그 환자는 문에 붙여진 부처님 포스터를 보고 위안 받아 매일 문 앞서 기도를 올렸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봉사자들은 법당 문이라도 열어야한다는 데 마음을 모으고 법당을 개방했다.

어제는 병원 법당을 찾았다가 호스피스병동서 인연이 된 보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는 남편 없이도 씩씩하게 직장에서는 리더로,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2018년 이맘 때 쯤, 호스피스 병동에 갔을 때 보살은 나를 반기며 상담을 청했다. "스님 제가 개종해야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답답해서 스님께 여쭈려고요." 그녀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용인 즉, 남편은 현재 말기암 환자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 사정이 어려워 병원비에 대한 고민에 쌓여있는 중이고, 남편의 형인 시숙이 '개종'을 권했다고 한다. 개종하면 병원비와 장례식 비용 등을 책임져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남편은 개종을 거부했고, 본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 중에 있다며 상담을 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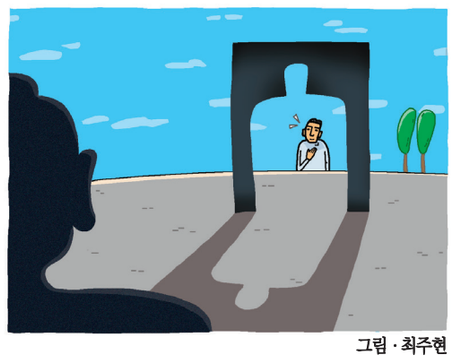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딱한 사정도 사정이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용해 개종이라는 순수치 못한 제안을 하는 친척들에 대한 화가 일어났다. 병석에 누워있던 거사는 나를 보자마자 몹시 반가워했다. 아내의 도움으로 몸을 일으키고 잠깐이지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불교와의 인연, 법명을 받게 된 일 등을 얘기할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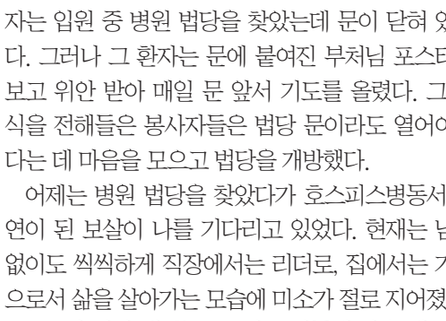
나는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심에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49재는 일산병원법당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 했고, 환자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 합장했다. 이후 나는 BBS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담당 제작진과 이 대상자에 대해 상의했고, 곧바로 사례자로 채택돼 방송됐으며, 며칠 후 안타깝게도 그는 임종했다. 나는 모든 가족들이 모인 자리서 불교식 임종 기도를 드렸다. 종교가 다른 가족들도 그때는 별 저항 없이 내가 진행하는 의식에 순응하며 환자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고했다. 그렇게 환자는 자신의 종교를 지키며 고귀하게 생을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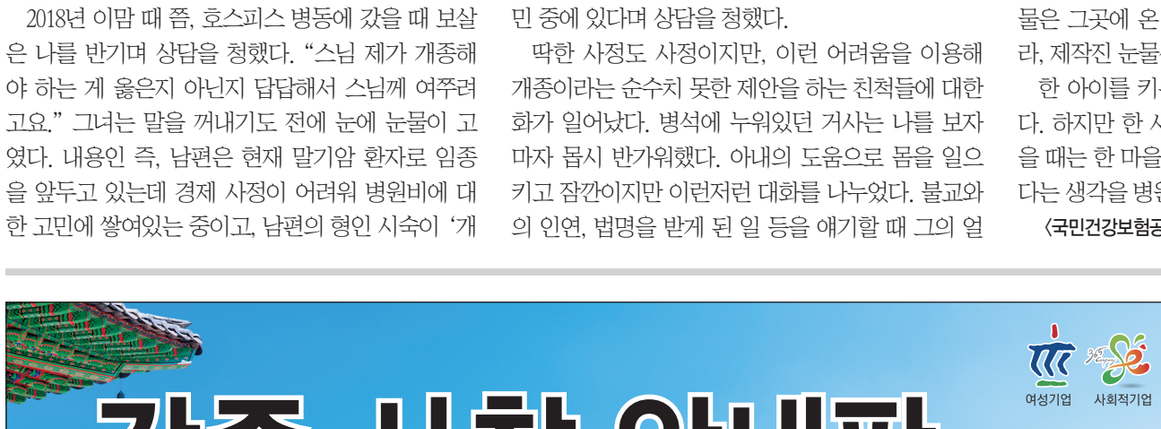
한 달 후 BBS 불교방송국 법당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서 보살님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 눈물은 그곳에 온 다른 사례자들과 그 가족들뿐 아니라, 제작진 눈물샘도 자극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이 병고의 고통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는 한 마을뿐 아니라, 한 종교의 힘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병원 현장서 느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각종 사찰 안내판(문화재) 제작전문업체
※ 모든 안내판은 태양광 조명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 문화재·사찰 도로교통표지판 • 종합관광안내판 • 유도 안내판
• 사찰 내 게시판 • 각종 안내판 일체


사찰의 각종 안내판 제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디자인, 제작·설치, A/S까지 책임시공!
산업디자인(종합) 인증업체, (주)김스애드


Kims AD (주)김스애드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474(망우동) T. (02)437-9151 / HP. 010-2224-9151

연구원 채용 공고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불교학 및 대행선의 연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 자 격 불교학 또는 선학 관련의 전공자로서 박사학위소지자.
* 제출서류 1) 석·박사학위증 사본 1부 2) 이력·경력서(사진 첨부, 본인 사인) 1부 3) 관심분야 연구계획서 1부
* 채용인원 0 명
* 서류제출기한 7월 25일까지
* 면접일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통고
* 근무조건 주 3일 (매주 일요일을 포함한 그 외 2일의 주 3일, 1일 8시간 근무)
* 주 업 무 1) 연 1회 학술대회, 연 4회 계절 발표회 준비 2) 연 2회 『한마음연구』 논문집 발간 업무 : 논문교정 등 3) 기타 연구원 업무 동참 4) 연 1편의 논문 발표
*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최종 결정함
* 월급여액 내부규정에 의함
※ 제출 e-mail : ds7788@hanmaum.org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한마음선원 내 대행선연구원
※ 전화번호 : 대행선연구원 031) 470-3276, 3277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